※ '돌직구'는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 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 박대통령 "평창 분산개최 반대"

**"경기장 공사 중 분산개최 의미 없다"**
**IOC에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
**평창조직위 주장에 힘 실어주기도**

박근혜 대통령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개혁안 발표로 평창올림픽 분산개최론이 제기되는 등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3번 만에 어렵게 유치한 대회이고 각 경기장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산개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뉴시스

**●IOC의 분산개최안을 둘러싼 논란**

IOC는 8일(한국시간) 올림픽을 복수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는 내용을 담은 '어젠다 2020'을 통과시킨 뒤 평창을 압박할 태세를 취했다. 이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안이다. 특히 IOC는 분산개최지로 일본 나가노의 슬라이딩센터(썰매종목 경기장)를 주목하고 있다.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 건설 중인 슬라이딩센터는 약 1200억원의 건설비와 연간 30억~50억원의 운영비가 들지만, 사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미 3월에 착공해 건설을 중단하면 매몰비용만 약 600억원이며, 일본과의 분산개최는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일각에선 "국내 다른 지역에 위치한 스키활강경기장, 개·폐회식장,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등을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일"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분산개최 반대" IOC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한 정부**

이미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은 분산개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한국정부의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IOC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진 셈이다. IOC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평창조직위 역시 반대 근거를 주장하는 데 더 힘을 낼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IOC에 분명한 설득논리로 대응하길 바란다. 다만 대회 준비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현안을 빨리 정리하고 밀린 준비과제들을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후 세계인들로부터 잘 준비된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정기획수석은 교육문화수석과 협업해 현안들을 연말까지 완전하게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정해진 계획대로 착실하게 올림픽 준비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 개막해 2월 25일 폐막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대회 폐막 직전인 2018년 2월 24일까지다.

**●대통령 의지에 관계부처들도 잰걸음 시작**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관계부처들도 잰걸음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관계자는 "이제 화살은 당겨졌다. 정부도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IOC의 분산개최 압박의 배경 중에는 정부-강원도-평창조직위가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올림픽 준비 과정이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었다. 한 체육 관계자는 "IOC를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떨어진 평창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평창이 문제없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할 수 있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 김정환, 뉴욕 그랑프리 金…男 펜싱 사브르 '전성시대' 잇다

**그랑프리 개인전, 월드컵보다 포인트 높아**
**리우올림픽 사브르 개인전 금도전 청신호**

펜싱 남자 사브르의 김정환이 15일(한국시간) 뉴욕에서 열린 국제그랑프리대회 개인전에서 우승해 다시 한번 '펜싱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였다. 스포츠동아DB

김정환(31·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제그랑프리펜싱대회 정상에 오르며 한국 남자 사브르의 전성시대를 이어갔다.

세계랭킹 2위 김정환은 15일(한국시간) 뉴욕에서 열린 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개인전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알도 몬타노(5위)를 15-10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8강전에서 뱅상 앙스테트(프랑스·18위)를 15-11, 준결승에서 아론 실라지(헝가리·4위)를 15-8로 꺾은 뒤 결승에서도 상대를 압도했다.

한국 남자 사브르는 2012런던올림픽 단체전에서 김정환, 구본길, 오은석(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원우영(서울메트로)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봄날을 맞았다. 이들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단체전 정상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남자 사브르 단체전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정식종목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다.

펜싱은 플뢰레·에페·사브르에서 남녀 개인과 단체 등 총 12개 세부종목으로 나뉘는데, 올림픽에는 10개의 금메달만 걸려있다. 2개 종목의 단체전은 돌아가며 올림픽과 잠시 이별한다. 런던올림픽에선 남자 에페와 여자 사브르가 정식종목에서 제외됐고, 리우올림픽에선 여자 플뢰레와 남자 사브르가 빠진다. 2개 종목 모두 한국이 강세라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리우에선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도 충분히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월 구본길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월드컵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이후 이번에 김정환까지 낭보를 전했기 때문이다.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는 "월드컵은 개인·단체전이 모두 열리는 반면 그랑프리는 개인전만 치른다. 개인전에 걸린 국제펜싱연맹(FIE) 세계랭킹 포인트 역시 그랑프리가 월드컵보다 더 높다. 그랑프리 개인전 우승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 스타들 빠진 'KLPGA투어 개막전'…왜?

**12월 개최한 '현대차오픈'…해외투어 선수엔 무리**
**다음대회는 4개월후…선수들도 "일정 이해 안간다"**

"개막전인데 전혀 개막전 같지 않아요."

14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막을 내린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은 2015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공식 개막전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크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임에도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빠졌다. 김하늘(26·비씨카드), 허윤경(24·SBI), 이정민(22·비씨카드), 김세영(21·미래에셋), 백규정(19·CJ오쇼핑) 등이 출전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애매한 일정을 빼놓을 수 없다. KLPGA 투어는 11월 16일 끝난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을 마지막으로 2014시즌을 마감했다. 시즌을 마친 선수들은 해외투어 진출을 준비하거나 체력 회복, 부상 치료, 학교생활 등 시즌에 미뤄둔 일들을 한다.

특히 올해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퀄리파잉 토너먼트(QT)에 출전한 선수들이 많았고, 일정도 비슷했다. JLPGA QT는 6일, LPGA QT는 8일 끝났다. 이들이 12일부터 시작된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 나오기 위해선 강행군이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올해 일본과 미국의 QT에 도전한 선수들의 출전 포기가 잇따랐다. QT에 참가한 선수 중 이 대회에 나온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인 장하나(22·비씨카드)뿐이었다.

제한적인 출전 자격도 개막전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대회에는 KLPGA 시드 순위 상위 40명만 출전할 수 있다. 또 상위 40명 중 출전하지 않는 선수가 나오더라도 차순위는 KLPGA가 아닌 CLPGA(중국여자프로골프) 선수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했다. 그러다보니 올해 대회에는 역대 우승자를 포함해 KLPGA 선수가 41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평균적인 120명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개막전치고는 자국 선수의 출전비율이 너무 낮았다.

대회의 성격도 혼란을 주고 있다.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은 KLPGA와 CLPGA가 공동 주관한다. 그러나 시즌을 끝낸 KLPGA 투어는 이 대회를 2015시즌 개막전으로, CLPGA 투어는 2014시즌 최종전으로 진행했다. 양국 투어가 하나의 대회를 놓고 개막전과 최종전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A선수는 "개막전인데 전혀 개막전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개막전을 하고 다음 대회까지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굳이 12월에 개막전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차라리 출전선수를 늘리고 대회도 3월에 개최하면 지금보다 훨씬 분위기 좋은 개막전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KLPGA 투어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에서 개막전을 치른다면 이번보다 훨씬 더 신나고 화려하게 시즌을 시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 41명의 선수만으로 치른 개막전이 아쉬운 이유다. 선전(중국)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